■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1〉

미온적 대처가 가져온 화란(禍亂)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초봄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중국 정치의 권력 구조는 다시 한 번 시진핑 중심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차기 지도자에 대한 분명한 후계 구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권력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권력이 한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일수록 그 다음 단계, 즉 권력의 승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권력의 공백은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인물은 중국 최초로 천하통일을 달성한 진시황(秦始皇)이다. 그는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진나라를 기반으로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였다. 이 업적은 분명 위대한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통일 제국의 기반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진시황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제국은 빠르게 무너졌다. 사람들은 흔히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하지만, 통일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후계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서진(西晉)을 세운 사마염(司馬炎)의 경우이다. 후한 말 이후 중국은 위·촉·오의 삼국으로 나뉘어 오랜 분열과 전쟁을 겪었다. 사마염은 먼저 촉한을 멸망시킨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사마씨 가문을 이어 황제로 즉위하여 진나라를 세웠고, 이어 강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오나라까지 정복하였다. 이로써 후한 말 이후 약 70~80년에 걸친 분열과 혼란을 마무리하고 다시 천하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마염의 업적은 진시황에 못지않은 역사적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창업자의 업적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후계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사마염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남겼다. 사마염은 자신의 아들 사마충(司馬衷)을 태자로 세웠다. 하지만 사마충은 당시에도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리숙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신 화교(和嶠)는 "태자는 순수한 인물이지만 어려운 시대의 나라를 맡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이는 사실상 태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충언이었다.

그러나 사마염은 이러한 충언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자신의 손자 사마휼(司馬遹)에게 기대를 거는 방식이었다. 사마휼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궁궐에 불이 났을 때 어린 사마휼이 할아버지 사마염을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끌었다는 일화는 그의 총명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전해진다. 사마염은 이러한 손자의 재능을 보며 장차 그가 진나라를 이어갈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사마염의 구상은 이러했다. 아들 사마충이 잠시 황위를 이어받고, 이후 손자 사마휼이 황위를 계승하면 왕조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는 후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와 타협하며 문제를 미루어 둔 방식에 가까웠다. 권력 승계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채 상황에 의존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그것은 바로 사마염이 사마휼과 현명한 사마휼의 친모인 사구(謝玖)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대신 진나라 건국에 공을 세운 공신 가충(賈充)의 정치적 세력을 고려하여 그의 딸 가남풍(賈南風)을 태자비로 맞이한 것이다. 가남풍은 질투심과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런 성격은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녀가 임신한 태자의 시첩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 사마염이 이를 엄하게 처벌하였다면 그가 구상한 후계 구도는 제대로 작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며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훗날 큰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사마염은 또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황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마씨 친족 약 서른 명을 각지의 왕으로 봉하고 군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과거 위나라가 황실의 힘을 약화시킨 결과 권력을 잃었던 일을 교훈으로 삼은 조치였다. 그러나 중심 권력이 약해질 경우 이러한 장치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사마염이 죽고 사마충이 황제가 되자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가남풍은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태자 사마휼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 지방의 왕들을 중앙 정치에 끌어들였다. 그 결과 진나라를 뒤흔든 8왕의 난이 일어났다. 황실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던 군사력은 오히려 서로 싸우는 무기가 되었고, 제국은 오랜 내전에 빠졌다.

내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외부의 위협도 커졌다. 북방 민족들이 남하하면서 국경 방어는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진나라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통일 제국을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불과 몇 십 년 만에 통일의 성과는 크게 흔들리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는 권력의 집중과 승계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다음 단계인 권력 승계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승계의 원칙과 준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의 행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지면서, 마치 소설 속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사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기술적 통제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강력한 권력 유지 장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든 중앙 권력자는 그 시대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 체제가 흔들릴 때에는 바로 그 효과적인 장치들이 의도와 상반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 정치를 바라보면 역사 공부의 좋은 사례가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권력의 집중, 후계 문제, 그리고 통제 장치의 활용이라는 요소들이 역사 속 여러 장면과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자국 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다. 또는 사마귀가 수레에 맞서다.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가다 사마귀가 앞을 막자 "만일 사람이라면 응당 무서운 용사일 것이다." 라며 수레를 비켜 갔다는 회남자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는 사마귀의 용맹을 긍정하는 의미였으나 후대에 와서 무모함을 꼬집는 뜻으로 부정적 뉘앙스로 널리 쓰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계란격석(鷄卵擊石), 이란투석(以卵投石).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등이 있습니다.

당랑포선(螳螂捕蟬)

사마귀 당. 사마귀 랑. 잡을 포. 매미 선.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다.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닥친 위험을 깨닫지 못하다.

유래: 춘추시대 오나라 왕 수몽은 국력이 강성해지자 형(荊)나라를 치기 위해 전쟁준비를 시켰다. 하지만 문무대신들은 당시의 정황상 전쟁이 오나라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출병을 막으려 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누구든 출병을 막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엄명을 내리자 아무도 나서서 간언하는 자가 없었다. 오왕의 아들 태자도 간언하고 싶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한가지 계책을 내었다. 태자가 아침부터 활을 들고 궁의 이곳저곳을 서성거리자 왕이 물었다. "아침부터 옷을 다 적시며 무엇하느냐" 태자가 대답하기를 "정원의 나무 위에 매미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두팔을 뻗어 매미를 잡으려 하는데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사마귀를 쪼아 먹으려 하는데 순간 아래에 저의 화살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셋은 모두 자신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뒤에 닥쳐올 화를 생각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오왕이 크게 깨닫고 전쟁준비를 중단하였다.

이 고전에 등장하는 사마귀가 자기 뒤에 참새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미를 노렸다는 데서 당랑포선이라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당랑규선(螳螂窺蟬), 당랑박선(螳螂搏蟬) 등으로도 쓰며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탐한 나머지 자신에게 닥쳐올 재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당면착과(當面錯過)

마땅할 당. 당할 당. 낯 면. 잘못 볼 착. 지날 과. 허물과.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잘못을 저지름. 착오를 일으킴.

눈앞에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 버린다는 뜻. 즉 소중한 기회나 인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함

당상희락(當常喜樂)

마땅 당. 항상 상. 기쁠 희. 즐거울 락.

항상 기뻐하라. 마땅히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뜻.

출전은 화엄경, 성경의 시편

당연지사(當然之事)

마땅 당. 그럴 연. 갈 지. 일 사.

마땅히 그러한 일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고 여겨지는 일

추밀공파 안양공 종중 정기총회

추밀공파 안양공 종중 정기총회가 2026년 3월 8일 지하철 8호선 태평역 근처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권혁상 전임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소집되었다. 전 회원은 회의 진행에 앞서 고인을 위해 묵념을 올리고 임시의장으로 권영갑 전 회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영갑 임시의장은 인사말로 권혁상 회장께서 여행 중에 타지에서 타계하셨는데 뒤늦게 알게 되어 너무 안타깝다. 그동안 권혁상 회장께서 종중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세하셔서 마음이 아프다. 명복을 빌 뿐이다. 회장이 유고된 긴급한 상황이라 부득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혁춘 감사가 2025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총회 승인 안건 3건과 토의 안건 1건 등 4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회장 궐위 상태를 보완하고 막중한 종중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임원진으로 모두 개선하였다.

먼저 신임 회장에는 권오찬(35世) 회장이 선출되었다. 고문에는 권영환, 권오주, 권혁원 대종회 부회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이 선임되었다. 감사에는 권혁춘. 권혁복 회원이 선출되었다. 총무에는 권혁봉, 이사에는 권오용. 권순홍. 권혁준, 권혁팔. 권혁문. 권오찬(음성) 회원이 선임되었다.

권오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앞으로 3년 동안 종중 업무를 잘 이끌겠다. 종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봉 총무

〈2026年 4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2.27. ~ 3.25.
총 납부자 376명

(이름순)

총 13,990,000원 단위:원

권 덕(충북 청주) 30,000	권덕주(전북 전주) 30,000	권성기(충남 금산) 30,000	권영수(경북 영주) 30,000	권오영(경북 영주) 30,000	권윤택(인천 남동) 60,000	권중필(경북 안동) 30,000	권혁달(경북 경주) 30,000
권 박(경북 안동) 30,000	권덕중(서울 성북) 30,000	권성열(전북 완주) 30,000	권영식(충북 청주) 30,000	권오완(경북 예천) 30,000	권윤호(대구 수성) 30,000	권중현(경남 함양) 30,000	권혁두(경남 김해) 30,000
권 현(대구 남구) 30,000	권돈혁(강원 강릉) 30,000	권성택(충북 청주) 30,000	권영신(경기 양평) 30,000	권오용(경북 구미) 30,000	권의홍(전북 익산) 30,000	권중후(경북 영주) 30,000	권혁렬(강원 강릉) 30,000
권경석(대전 서구) 30,000	권동각(서울 성동) 30,000	권세강(경북 안동) 30,000	권영신(충남 홍성) 30,000	권오원(충북 제천) 30,000	권이도(부산 북구) 30,000	권진기(전북 정읍) 30,000	권혁록(강원 강릉) 30,000
권경석(서울 성북) 30,000	권동원(충남 서산) 30,000	권세원(경북 영주) 30,000	권영오(대구 수성) 30,000	권오일(서울 마포) 30,000	권이성(충북 청주) 30,000	권진택(경북 경주) 30,000	권혁록(경기 용인) 100,000
권경택(서울 금천) 30,000	권동임(전북 정읍) 30,000	권세종(경북 안동) 30,000	권영완(서울 성북) 30,000	권오점(경북 안동) 30,000	권이철(경기 김포) 30,000	권진현(경남 함양) 30,000	권혁만(충북 청주) 30,000
권경훈(대구 북구) 30,000	권동재(경기 과천) 30,000	권송웅(대전 서구) 30,000	권영우(충북 음성) 30,000	권오정(경북 영주) 30,000	권이현(대구 달서) 30,000	권진홍(전북 전주) 30,000	권혁무(강원 강릉) 30,000
권광순(대전 중구) 30,000	권동주(전북 장수) 30,000	권수보(경북 경주) 30,000	권영욱(경북 경주) 30,000	권오정(경북 예천) 30,000	권익기(경북 안동) 30,000	권찬달(경북 영덕) 30,000	권혁무(대구 남구) 30,000
권구민(서울 송파) 30,000	권두규(대구 동구) 30,000	권수용(충남 태안) 30,000	권영운(경기 김포) 30,000	권오정(경북 포항) 30,000	권인섭(경북 의성) 30,000	권찬익(광주 광산) 30,000	권혁문(강원 강릉) 30,000
권구석(서울 송파) 30,000	권두채(전북 전주) 30,000	권수원(경기 김포) 50,000	권영원(경기 용인) 30,000	권오정(서울 마포) 30,000	권인식(경기 용인) 30,000	권창봉(강원 강릉) 30,000	권혁봉(경기 양주) 30,000
권국상(충남 예산) 30,000	권두호(경북 구미) 30,000	권숙종(경북 안동) 30,000	권영창(경북 영천) 30,000	권오종(광주 서구) 30,000	권인준(경북 구미) 30,000	권창식(강원 강릉) 30,000	권혁상(대구 수성) 20,000
권국진(대구 달서) 30,000	권득상(충북 제천) 30,000	권순갑(경기 용인) 30,000	권영채(경북 예천) 30,000	권오주(강원 강릉) 30,000	권일웅(대구 수성) 30,000	권창호(경북 안동) 30,000	권혁수(대구 군위) 30,000
권규석(충북 제천) 30,000	권득호(경기 용인) 30,000	권순규(서울 서초) 30,000	권영표(경북 영주) 30,000	권오중(강원 강릉) 30,000	권장섭(강원 강릉) 30,000	권천영(서울 용산) 30,000	권혁수(대구 남구) 30,000
권규인(경북 안동) 30,000	권만기(경북 경주) 30,000	권순도(경북 안동) 30,000	권영하(강원 강릉) 30,000	권오진(서울 강서) 30,000	권장희(서울 송파) 30,000	권철주(서울 관악) 30,000	권혁수(서울 서대문) 30,000
권규택(서울 중구) 30,000	권만수(충남 서산) 30,000	권순박(경북 예천) 30,000	권영학(경기 이천) 30,000	권오찬(경북 경주) 30,000	권재겸(경기 화성) 30,000	권철중(충북 청주) 30,000	권혁주(경북 칠곡) 30,000
권극상(경남 창원) 30,000	권만찬(충북 청주) 30,000	권순복(부산 금정) 30,000	권영현(경남 밀양) 30,000	권오찬(경북 청송) 30,000	권재목(경북 안동) 30,000	권철희(대구 수성) 30,000	권혁준(경북 상주) 30,000
권근오(전남 강진) 30,000	권만택(경북 경주) 30,000	권순봉(경북 경주) 30,000	권영현(경남 진주) 30,000	권오철(경기 시흥) 30,000	권재식(경북 안동) 30,000	권청일(대구 동구) 30,000	권혁중(충남 청양) 30,000
권기대(대구 달서) 30,000	권명식(서울 강서) 30,000	권순상(강원 강릉) 30,000	권영호(경기 용인) 90,000	권오철(경북 영덕) 30,000	권재원(경북 안동) 30,000	권춘희(경북 안동) 30,000	권혁집(강원 강릉) 30,000
권기룡(경북 경주) 30,000	권명준(강원 강릉) 30,000	권순욱(서울 강서) 30,000	권영호(경북 안동) 30,000	권오철(경북 영주) 30,000	권재원(전북 정읍) 30,000	권충욱(경남 함안) 30,000	권혁천(서울 노원) 30,000
권기만(경북 안동) 30,000	권무성(경북 안동) 30,000	권순일(울산 중구) 30,000	권영환(경북 청송) 30,000	권오청(서울 은평) 30,000	권재윤(경기 여주) 30,000	권태경(경남 밀양) 30,000	권혁철(충남 공주) 30,000
권기범(경기 수원) 30,000	권문택(전북 전주) 30,000	권순일(전남 나주) 20,000	권영환(대구 동구) 30,000	권오추(경북 안동) 30,000	권전탁(경북 경산) 30,000	권태경(경북 안동) 30,000	권혁춘(강원 강릉) 30,000
권기상(대전 서구) 30,000	권민성(경북 안동) 30,000	권순종(경남 통영) 30,000	권영환(서울 은평) 30,000	권오출(경북 의성) 30,000	권정국(대전 유성) 30,000	권태명(경기 수원) 30,000	권혁한(경기 용인) 30,000
권기석(경북 안동) 30,000	권민집(대구 달서) 30,000	권순종(경북 안동) 30,000	권영훈(서울 강남) 60,000	권오택(강원 강릉) 30,000	권정길(경북 봉화) 30,000	권태문(충북 진천) 30,000	권혁환(강원 평창) 30,000
권기열(경북 영주) 30,000	권병관(경남 산청) 30,000	권순창(경기 수원) 30,000	권오갑(경북 안동) 30,000	권오헌(경기 김포) 30,000	권정무(충북 제천) 30,000	권태복(경북 상주) 30,000	권혁훈(충북 진천) 30,000

권기운(경북 안동) 30,000	권병규(경남 양산) 30,000	권순창(경북 안동) 30,000	권오강(경북 예천) 30,000	권오현(경북 영주) 30,000	권정수(서울 서초) 30,000	권태석(대구 남구) 30,000	권현규(경기 고양) 30,000
권기원(경북 안동) 30,000	권병균(충남 천안) 30,000	권순채(서울 송파) 30,000	권오경(경기 남양주) 30,000	권오현(대구 동구) 30,000	권정열(경남 진주) 30,000	권태순(경기 안양) 30,000	권현욱(경북 봉화) 30,000
권기윤(경북 안동) 30,000	권병기(전북 전주) 30,000	권순철(강원 강릉) 30,000	권오곤(경남 진주) 30,000	권오흥(경북 경산) 30,000	권정용(경남 산청) 30,000	권태연(충북 제천) 30,000	권현주(강원 강릉)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병돈(경기 고양) 30,000	권순치(대구 달서) 30,000	권오근(경남 양산) 30,000	권옥로(서울 영등포) 30,000	권정집(세종 금남) 60,000	권태열(경북 안동) 30,000	권호관(경북 고령)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병배(경기 남양주) 30,000	권순칠(서울 강동) 30,000	권오근(경북 안동) 30,000	권옥술(서울 강남) 30,000	권정택(경북 상주) 30,000	권태완(경기 남양) 30,000	권호달(충북 제천) 30,000
권기창(경북 안동) 30,000	권병우(경기 양주) 30,000	권순택(강원 강릉) 30,000	권오기(서울 영등포) 30,000	권옥재(서울 강남) 30,000	권정호(경남 산청) 30,000	권태용(경북 청도) 30,000	권호성(충북 영동) 30,000
권기철(경북 경주) 100,000	권병윤(경북 영덕) 30,000	권순택(경북 안동) 30,000	권오길(경북 경주) 30,000	권용남(경북 안동) 30,000	권정호(경남 산청) 30,000	권태욱(서울 성동) 30,000	권호열(경북 안동) 30,000
권기춘(경북 안동) 30,000	권병일(경기 화성) 30,000	권승균(대전 서구) 30,000	권오길(경북 구미) 30,000	권용덕(충남 서산) 30,000	권정호(전북 남원) 30,000	권태원(경기 김포) 30,000	권홍근(경남 합천) 30,000
권기출(경북 안동) 30,000	권병택(충북 음성) 30,000	권승찬(경기 용인) 30,000	권오대(경북 청송) 30,000	권용복(충북 제천) 30,000	권정홍(경남 산청) 30,000	권태은(경북 구미) 30,000	권흥식(경북 의성) 30,000
권기한(경북 안동) 30,000	권병호(충남 서천) 30,000	권양호(경북 봉화) 30,000	권오도(서울 강북) 30,000	권용석(서울 마포) 30,000	권정환(경북 상주) 30,000	권태이(강원 강릉) 30,000	권희송(서울 성동) 30,000
권기형(서울 마포) 30,000	권병홍(충북 청주) 30,000	권영구(충북 제천) 30,000	권오민(강원 강릉) 30,000	권용운(전북 익산) 30,000	권정훈(인천 미추홀) 30,000	권태진(충남 부여) 30,000	권희영(강원 춘천) 30,000
권기호(경기 파주) 30,000	권봉기(전북 장수) 30,000	권영근(경기 양평) 30,000	권오민(경기 김포) 30,000	권용주(경기 안양) 30,000	권종구(경북 안동) 30,000	권태칠(경남 창원) 30,000	권희용(서울 동대문) 30,000
권기호(경북 안동) 30,000	권부성(서울 서초) 30,000	권영근(경남 밀양) 30,000	권오범(충남 예산) 30,000	권용태(서울 노원) 30,000	권종대(충북 청주) 30,000	권태학(경북 영주) 30,000	안동권씨 수원종친회 300,000
권길용(경북 안동) 30,000	권상경(전남 나주) 20,000	권영기(경북 안동) 30,000	권오복(강원 강릉) 30,000	권용한 30,000	권종렬(경남 진주) 30,000	권태혁(경북 안동) 30,000	안동권씨 여주종친회 220,000
권길중(경북 안동) 30,000	권상렬(대구 수성) 30,000	권영길(경북 안동) 30,000	권오복(대구 북구) 30,000	권우곤(경기 성남) 30,000	권종삼(서울 강서) 30,000	권태현(경북 안동) 30,000	안동권씨 영천종친회 2,000,000
권남철(인천 계양) 30,000	권상복(강원 삼척) 30,000	권영동(경북 영주) 30,000	권오봉(서울 강동) 30,000	권우식(경남 산청) 30,000	권종선(경기 용인) 30,000	권택도(경북 안동) 30,000	안동권씨 정조공파 60,000
권대규(전북 전주) 30,000	권상태(경기 남양주) 30,000	권영록(경기 군포) 30,000	권오선(경기 이천) 30,000	권우태(강원 강릉) 30,000	권종실(경북 안동) 30,000	권택락(경북 안동) 30,000	
권대균(경북 안동) 30,000	권상필(서울 강남) 30,000	권영록(경남 합천) 30,000	권오섭(충북 진천) 30,000	권우현(경남 진주) 30,000	권종원(경북 영주) 30,000	권택중(대구 서구) 30,000	
권대여(경북 안동) 30,000	권상학(서울 동대문) 30,000	권영목(서울 중랑) 30,000	권오성(경북 안동) 30,000	권원대(대구 중구) 30,000	권주미(서울 중랑) 30,000	권택호(경북 안동) 30,000	
권대영(서울 금천) 30,000	권상호(경북 안동) 30,000	권영문(경북 안동) 30,000	권오수(경북 구미) 30,000	권원택(경기 김포) 30,000	권주호(서울 노원) 30,000	권택훈(경북 경주) 30,000	
권대일(강원 횡성) 30,000	권석구(대구 동구) 30,000	권영민(경남 창원) 30,000	권오순(대구 남구) 30,000	권위영(서울 용산) 30,000	권중규(경북 안동) 30,000	권한주(서울 송파) 30,000	
권대주(광주 북구) 30,000	권석원(경북 안동) 30,000	권영배(충북 청주) 30,000	권오술(충북 청주) 30,000	권유달(경북 영덕) 30,000	권중석(경북 안동) 30,000	권헌시(강원 강릉) 30,000	
권덕산(경북 안동) 30,000	권석주(광주 동구) 30,000	권영백(경북 봉화) 30,000	권오양(경남 양산) 30,000	권유현(경남 산청) 30,000	권중석(서울 동작) 30,000	권혁관(경북 경주) 30,000	
권덕영(경남 함양) 30,000	권석주(전북 전주) 30,000	권영복(경북 안동) 30,000	권오연(경북 영주) 30,000	권윤자(경북 안동) 30,000	권중원(부산 금정) 30,000	권혁근(경북 경주) 3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